

# 브라보 안산

## BRAVO ANSAN

NO. 414 / ANSAN CITY NEWSPAPER

###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④ blog.naver.com/cityansan
- ① facebook.com/ansancity3
- ① twitter.com/ansancityhall
- ⑤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3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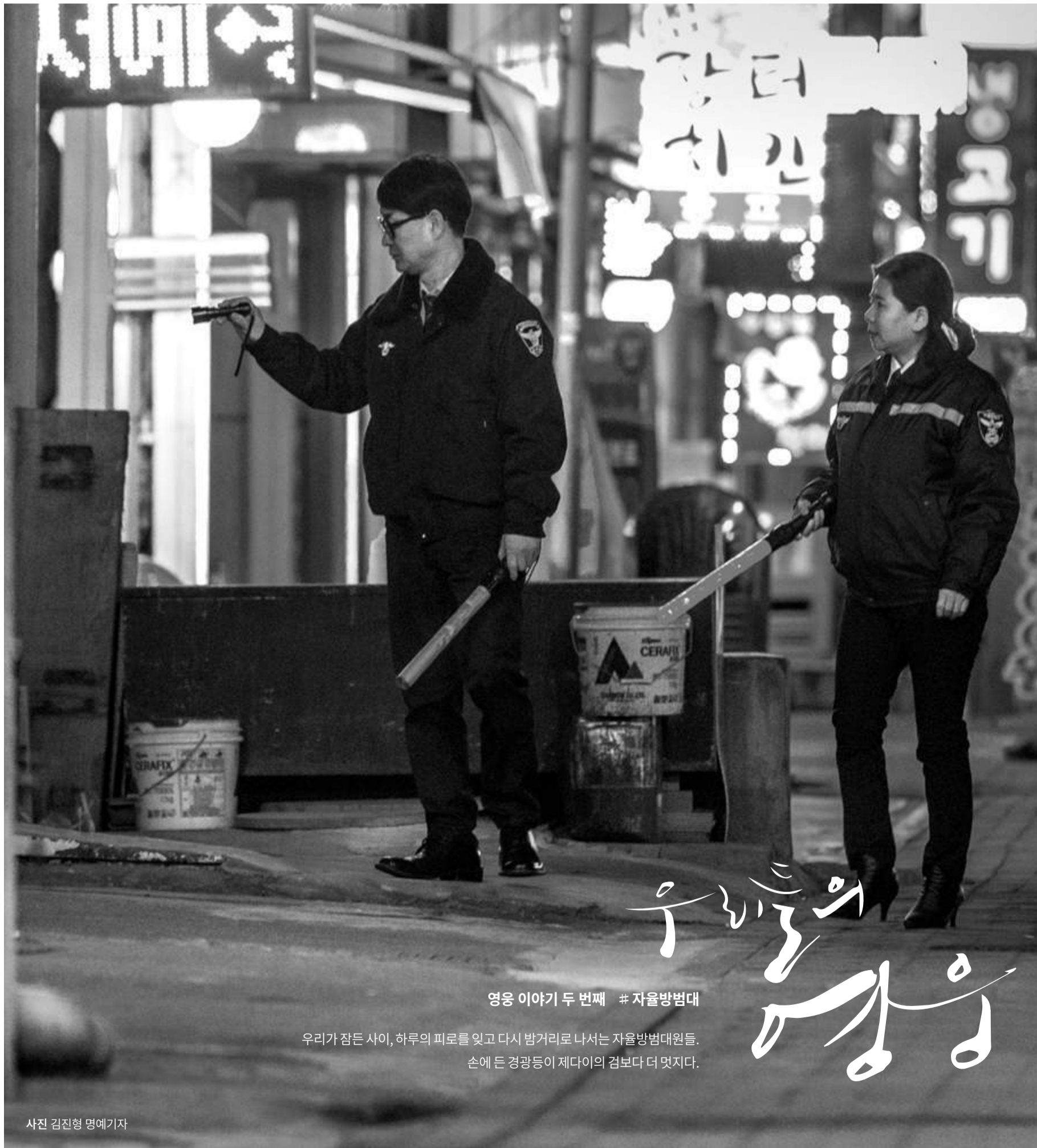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2016. 03. 02



# 우리의 상

영웅 이야기 두 번째 #자율방범대

우리가 잠든 사이, 하루의 피로를 잊고 다시 밤거리로 나서는 자율방범대원들.  
손에 든 경광등이 제다이의 검보다 더 멋지다.



# 꿈 + 열정 도전 + 취업 안산일자리센터가 지원합니다

☎ 문의 : 안산일자리센터(031-481-2919)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안산시청 민원동 2층에는 ‘안산일자리센터’가 있다. 일자리센터는 안산의 기업을 지원하고 공단 환경 조성 및 산업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 업무를 하는 산업지원본부 일자리정책과의 한 부서다. 일자리센터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김원재 계장과 센터 운영 담당 김도형 주사, ‘안산919취업박람회’의 신혜정 직업상담사, ‘목요일에 희망 잡(JOB) 고(Go)’ 담당자 유경희 직업상담사와 일자리센터 창구에서 구인·구직자와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직업상담사 6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2015년 6월 안산의 25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돼 주민 가까에서 구직을 돕는 ‘희망 일 드림’ 구직창구의 25명 직업상담사도 일자리센터 소속이다.



일자리센터는 1998년 2월 취업정보센터로 출발해 2010년 2월 지금의 일자리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 지난해 센터에서는 1만 3,900여 명이 구직 등록을 해, 총 8,591명이 취업했다. 취업에 이르기까지 일자리를 알선한 횟수는 4만8천 명에 달한다. 동 주민센터의 ‘희망 일 드림’ 창구의 운영실적도 이에 못지않다. 6,529명 구직등록, 알선 65,210명으로 이중 6,284명이 새롭게 일자리를 찾았다.

안산일자리센터의 업무는 크게 ▲취업박람회 운영 ▲맞춤취업지원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뉜다. 매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는 ‘안산919취업광장’은 구인·구직자에게 적합한 인력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만남의 장으로써 안산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타 도시에도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구직자들은 919취업박람회에 참가하면 취업성공에 이를 수 있는 이력서 작성부터 업무능력향상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 지원과 직업선호도 등을 알아보는 직업심리검사로 받을 수 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역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목요일에 희망 잡(Job) 고(Go)’는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소규모 취업박람회다. 특정 업종이나 계층의 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자신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이 박람회를 통해 한결 수월하게 적합한 일손을 구하고 취업의 기회를 얻는다.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직자와 함께 구인업체를 방문하는 동행면접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구인업체와 사전 협의 후 센터의 상담사가 구직자와 동행해 근무환경을 살펴보고 면접을 지원한다. 센터 교육장에는 언제든지 나와서 면접을 볼 수 있는 상설 면접실이 마련돼 있어 현장면접이 마땅하지 않은 구인업체와 구직자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의 25개 동 주민센터의 ‘내일 찾는 희망 일 드림’ 창구와 경기도와 연계한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도 연중 운행되면서 주민 가까에서 취업을 돕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여성·시니어·다문화 가족·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능력이나 실력은 있지만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일원이 되어 취업전선에 나선 다문화 가족,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한 34세 이하 구직자들에게 안성맞춤인 청년지원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20명 첫 기수를 모집해 3월 시작된다. 올해는 4기로 운영되는데 전문 직업상담사가 개인별 맞춤상담을 통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현장 실습을 통한 취업역량강화, 경력개발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일정액의 참여수당도 지급된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담당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Q. 구인·구직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A.** 안산 스마트허브의 1만900여 개 업체와 안산시민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실업 없는 안산이 이뤄지도록 매월 열리는 박람회 장소가 보다 넓었으면 한다. 나아가 일자리센터 독립 건물도 있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Q. 구직자에게 권하고 싶은 업체는?**

**A.** 지금 현재보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내실 있고 탄탄한 강소기업이 많이 있다. 구직자 분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은 일자리 선택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Q.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에게 팁을 준다면?**

**A.** 자신의 취업역량에 대해 정확히 알고 눈높이를 맞춰 능력에 어울리는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을 디딤돌로 더욱 발전해 나아가길 바란다.

**Q. 중장년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A.** 직장생활을 어느 정도 해 오신 고령자들은 퇴직준비 기간도 분명 있다. 이 기간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시간을 들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전의 화려했던 경력이나 높은 액수의 급여는 잊고 본인이 정작 원하는 일을 찾아 하시는 거다. 센터에서도 인생2모작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들이 원하는 일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Q.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 동분서주할 구직자에게 유용한 팁을 준다면?**

**A.**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시라. 희망을 갖고 고용노동센터, 일자리센터 등지도 찾다니면서 필요한 직업훈련 정보도 얻고 지원도 받으면서 취업의 기회를 붙잡길 바란다.

### 대부 로컬푸드 '심애티안' 시범음식점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안산 고유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대부 로컬푸드 시범음식점 5곳 중 나머지 두 곳을 소개하며 연재를 마친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_econojin@naver.com

## 향토음식으로 고향의 정취를 선물하다!

#### INFORMATION

문의 : 대부맛집 청미(032-887-1108)  
주소 : 단원구 대부북동 1826-156



### ④ 옹고집으로 고향의 맛을 지키는 < 대부맛집 청미 >

영흥도로 향하는 길목에는 파란 하늘을 배경삼은 붉은 황토집이 '대부맛집'이라는 간판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끈다.

황토 흙벽에 시골집 대문처럼 양쪽으로 활짝 열어젖힌 문에는 안산시에서 인증하는 '인기맛집' 현판과 함께 대부 로컬푸드 '심애티안' 인증 표시가 네온사인처럼 손님들의 발길을 잡는다. 김복선 사장은 대부도 음식점들의 외양과 식단이 획일화되어 있는 점에 착안해 자신만의 특화된 메뉴를 신중하게 찾아 대부도의 맛을 지키고 있다. 대부도가 고향인 사장은 친정어머니와 친척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식재료로 쓴다. 남편과 함께 직접 재배한 버섯과 지역농산물, 대부김 등으로 밑반찬을 준비한다. 탄도와 방아머리향에서 잡아온 꽃게는 꼼꼼한 선별 과정을 거쳐 신선하고 고른 맛을 유지하는 간장게장으로 마니아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바지락 고추장뚝배기, 간장게장, 영양굴밥이 '청미'의 대표 메뉴다. 올해에는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해 개발한 '어부밥상'이 메뉴에 오른다. '어부밥상'은 반농반어를 하던 어부들의 애환이 깊게 밴 음식이다. 발고랑이나 배 안의 좁은 공간에서 커다란 양푼에 나물과 채소, 바지락에 빠금장으로 간을 맞춰 비벼 먹던 비빔밥에 착안한 메뉴다. 빠금장은 간장을 거치지 않아 콩이 간직한 영양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청미의 '어부밥상'은 육수에 빠금장, 호박, 버섯 등 채소를 넣고 한소끔 끓이다 마지막에 바지락과 굴을 듬뿍 넣어 끓여 먹는 찌개에 돌솥밥과 밑반찬으로 한상 차림을 한다.

김 사장은 "각박한 도시에서 치열하게 사는 도시인들이 고향을 찾듯 내 집을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짜지 않게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라며 "대부도의 딸로서 고향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 직접 키운 평에 정성을 담다!

#### INFORMATION

문의 : 평먹고 만두먹고  
(blog.naver.com/taein79)  
(032-881-1192)  
주소 : 단원구 대부북동 730-3



### ⑤ 전국에도 흔치 않은 평요리집 < 평먹고 만두먹고 >

대부도에는 전국에도 흔치 않은 평요리집이 있다. 20년 넘게 평을 사육해 도·소매를 하는 아버지 곁에서 평요리를 하는 '평먹고 만두먹고'.

담백한 육질로 임금님께 진상되던 평고기는 예나 지금이나 귀한 식재료다. 평은 4월 하순에서 6월까지 산란을 하며 6개월가량 자란다. 봄에만 알을 낳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접하기는 어렵다. 「동의보감」에는 평이 갈증을 없애주며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기를 더하는 좋은 약재로 소개하고 있다. 평에는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기력을 더하고 간을 보호하며 눈을 밝게 한다.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해 콜레스테롤 억제효과가 있으며 피를 맑게 한다. 평은 타 육류와 달리 섬유소가 가늘어 세포를 윤택하게 하고 피부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평먹고 만두먹고'를 찾는 손님은 옛 향수를 즐기러 오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콩알에 쌀을 넣어 산에 뿌려 놓은 뒤 평을 사냥하던 이들은 그 맛과 추억으로 이곳을 찾는다. 대부도 주민보다 외지인 손님들이 더 많다. 평요리를 시작한 지 5년이 되니 웰빙음식을 찾는 가족 단위 손님이 많아졌다고 한다. 평 농장을 하는 아버지 주변에서 요리를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권유로 평요리 전문점을 하게 되었다는 박천규 사장은 "요리경력이 부족해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어요. 그동안 연구도 많이 했고, 실수가 경험으로 쌓이면서 이제는 자신 있다."고 했다.

'평먹고 만두먹고'의 대표메뉴는 백숙과 만두다. 평백숙은 엄나무, 뽕나무뿌리, 찹, 감초, 오가피, 황기를 우려낸 한방육수에 평을 넣고 40여 분간 끓여 먹는 보양식이다. 부드럽고 담백한 고기를 덜어낸 후 국물에 찹쌀밥을 넣어 먹는 죽도 별미다. 백숙은 담백하게, 평탕은 닭볶음탕처럼 매콤하게, 농장에서 바로 잡아 내오는 육회는 더없이 신선하다. 평 육회는 코스로 즐길 수 있는 메뉴다. 소고기 육회보다 고소한 맛은 조금 덜하지만 생선회의 육질처럼 쫄깃하면서 비린내는 없다. 쓸개, 동집, 간까지 사시미 형태로 나온다. 회를 뜨고 난 나머지는 백숙으로 제공한다.

요리를 맡고 있는 안주인 이태인 사장은 "직접 키운 평과 텃밭에서 재배한 계절채소로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보람이 커요.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진정성으로 손님을 맞으려고 합니다."라며 단골 고객에게는 하수오, 말벌주 등 약주를 대접한다. 생평과 평만두는 택배로 주문이 가능하다.





## 안산시 청년 창업의 꿈 ‘청년큐브’에서 펼친다

서울예대·한양대캠프, 30팀 입주 공간 문 열어

2월 26일,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인 ‘청년큐브’가 개소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은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 공모 선정을 통해 도비 19억을 확보한 가운데 시 예산 5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비어 있는 상가를 활용, 청년 창업공간(청년큐브)을 조성·운영해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생 실현에 기여하고자 추진한다.

‘청년큐브’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융복합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거점 시설이다. 한양대와 서울예술대의 IT, 문화예술 콘텐츠 등 각 대학의 특성화된 역량을 연계해 공간을 특화하면서 양 대학 인근에 청년큐브 예대캠프(월피동 광덕시장), 한양캠프(사3동 한양타운)를 마련했다. 청년큐브 개소식은 입주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대캠프와 한양캠프에서 연이어 진행됐다. 입주자와 경기테크노파크, 대학 등 사업 전담 및 협력기관, 지역사회가 사업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다지는 기회로 삼고, 주변 상인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도전조차 꿈이라고 여기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에 늘 안타까웠다. 안산시는 청년큐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자유롭고 거침없이 도전하고 꿈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의 창작 의욕과 상상력을 담은 공간이 지역 사회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디자인을 기초로 한 다목적 창작그룹 ‘미트너’의 원종국 대표(25세, 예대 시각디자인과3)는 “졸업을 앞두고 작업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던 때에 임대료 부담이 없는 청년큐브에 들어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다른 입주업체들과도 도움 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기대가 됩니다.”라며 한껏 들떠 있었다.

청년큐브는 전체 30실(예대캠프 20, 한양캠프 10)에 30팀, 총 102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된다. 청년큐브 공간은 이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창업 교육과 멘토링 등의 장으로 활용되며, 입주자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꿈을 향해가는 청년들의 여정에 함께할 예정이다.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l@hanmail.net

## 안산시, 시승격 30주년 ‘새로운 도약’ 준비

2016년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한 안산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민의 역량 결집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안산시는 고려 태조 23년(940년)에 ‘안산’이라는 지명을 처음 사용하였고 이후 안산현, 안산군으로 지명이 변경되었고, 1914년 시흥군으로 통폐합되었다가 1986년 시 승격과 함께 ‘안산’의 옛지명을 되찾게 되었다.

시승격 30주년은 ‘안산’의 지명을 되찾은 지 30년째 되는 해, 대한민국 산업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30년의 역사, 농어촌 마을에서 서해안 최고의 도시로 급성장해 온 30년, 역동의 한세대 30년을 보내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으로서 2016년도를 새로운 미래를 준비를 위한 원년으로 삼아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30주년의 상징체계로 슬로건인 ‘1000년의 숲, 30년의 땀, 100년의 꿈’과 엠블렘을 확정하고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시 청사에 대형 현수막과 도심 주요지역에 기념배너기와 현수막, 홍보탑을 설치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시민 영상페스티벌, 기념책자 발간, 체육대회, 음악회 등 40여 개의 분야별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쳐 시민과 함께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역사와 성과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희망과 번영의 미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 관계자는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안산을 사람과 다양한 생명, 산업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고 그 안에서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내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숲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MADE  
IN ANSAN  
기업탐방



# 외국에서 더 먼저 알려진 수채화 물감 전문 제조사 ‘미젤로’

수채화 물감 시장의 판도를 바꾸다

수채화 물감에 대한 아련한 기억과 함께 특정 상호가 단박에 머리에 떠오른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국내 브랜드의 제품 외에 달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경우 대부분 미국과 독일의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국내 제조회사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 반문하지 않았다.

‘미젤로’는 2002년 팔레트 제조 회사로 문을 열었다. 미대를 졸업하고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서민진 대표는 늘 접하던 팔레트의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하던 끝에 ‘미젤로’를 창업하게 되었다. ‘미젤로’에서 판매하는 팔레트는 현재 국내 팔레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후 2008년 전문가용 수채화 물감 개발에 전념해 2011년 출시한 후 2012년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였다. 전문가용 미술 도구 시장은 수요가 많지 않아 신규 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유명한 제조사들도 200~300년의 전통을 갖고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이 대다수고 100년 전부터 최근 까지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의 출현은 사실상 없었다.

그와 같은 배경으로 미술시장의 견고한 아성에 도전하는 ‘미젤로’의 도전은 업계에 회자되었다. ‘팔레트로 번 돈 물감으로 다 말아 먹을 거다’라는 비아냥거림과 ‘전문성이 결여된 무모한 도전’이라는 말로 결과를 점치곤 했다.

그러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과 신앙심으로 무장한 서민진 대표의 행보를 막을 수는 없었다. ‘기존 제품보다 확실히 좋아야 한다’ ‘똑같아도 안 되고, 비슷해서도 안 된다’는 각오로 보통사람의 배로 일하며 개발에 몰두했다.

제품이 판매된 후 실제로 물감을 사용한 일부 작가들이 자신의 SNS에 올린 제품에 대한 평가가 확산되면서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외국 작가들이 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상황이 되었다. 물감은 품질에 대한 평가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확산속도도 빨랐다.

‘미젤로’에서 판매하는 전문가용 수채화 물감 ‘미션’은 현재 러시아와 중동을 제외한 25개 국에 판매되고 있다. 현재는 전체 판매량의 40% 정도를 수출이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민진 대표는 “외국 물감을 쓰던 작가들이 국내 제품을 사용해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 회사를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복지 센터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난 둘째 아이는 그녀의 삶의 태도와 존재 이유를 바꿔놓았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는 말이 때로는 자신의 나약함을 가려 줄 방패가 되어주지만, 장애는 장애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세상은 다양한 빛깔이 서로 어우러져야 아름답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한다.

김은미 명예기자 \_ iam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문의  
미젤로(www.mijello.com)  
☎ 031-415-8133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담원2길 7



# 2016 '안산의 책' 선정!

## '그래도 괜찮은 하루'

중앙도서관은 「2016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신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주제로 올해의 '안산의 책'을 계층별(어린이, 청소년, 일반)로 3개 부문에 걸쳐 대상 도서를 선정하였다. 어린이 도서로는 「나쁜 어린이표」, 청소년 도서로는 「오즈의 의류수거함」, 일반(성인) 도서로는 「그래도 괜찮은 하루」가 선정되었다.

'안산의 책' 선정과정은 먼저 시민들로부터 계층별로 추천을 받았으며, 선정위원들이 1차 회의를 거쳐 5권으로 후보 도서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선정된 후보도서를 대상으로 다시 시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계층별로 최종 후보도서 2권을 선정하였으며, 최종 선정은 2월 3일에 열린 제2차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심사숙고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안산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는 독서 토론대회, 독서 감상문·감상화 공개모집, 그리고 각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의 주제 도서로도 활용된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통해 안산시 내 학교에서도 필독서로 지정되어 학생들의 독서활동과 연계시킬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올해 안산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는 2016 안산의 책 선포식(3월 4일)을 기점으로 각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등에 대상 도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범시민 독서운동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책으로 소통되는 안산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랑 중심 안산특별시

범 시민 독서운동  
책속의 상상! 안산의 책

30  
안산 30주년 기념사업

## 2016 '안산의 책' 선포식 & 한 책 작가와의 만남

2016 안산의 책

일반



그래도 괜찮은 하루  
저자 구작가(구경선)

청소년



오즈의 의류수거함  
저자 유영민

어린이



나쁜 어린이표  
저자 황선미

### 선포식 & 작가와의 만남

**2016. 3. 4.(금) 오후 3시**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오프닝 공연 / 안산의 책 선포 / 협약식 / 작가와의 만남 및 북콘서트 / 책 기증식 및 전달식(독서릴레이) 등

**접수** 2016. 2. 23.(화) 오전9시부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lib.iansan.net) 문화행사 선착순

### 독서릴레이 참가 안내

- ◆ 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lib.iansan.net)
  - ☞ 문화행사 (문화강좌관)
- ◆ 3.4.(금) 선포식 당일 독서릴레이 참가자에게 한 책 배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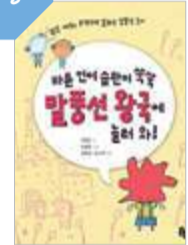
당신이 아름다운 이유

Ansan Joongang Library  
안산중앙도서관 ☎ 481-3866

## 책 읽는 안산 / 3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습관의 힘

아동



### 바른 언어 습관이 쑥쑥 말풍선 왕국에 놀러 와!

저자 안영은 / 출판사 토토북

예비 초등학생과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즐겁게 공부하면서 따뜻한 인성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토토야 놀자」 제3권 「바른 언어 습관이 쑥쑥 말풍선 왕국에 놀러 와」. 세상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왕국인 '말풍선 왕국'으로 아이들을 안내한다. 개성 넘치는 그림을 함께 담아 이야기에 몰입하도록 이끌고 있다.

청소년



### 감정은 습관이다

저자 박용철 / 출판사 추수밭

부정의 나를 긍정의 나로 바꾸는 힘 「감정은 습관이다」. 그 동안 정신과 전문의로서 많은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해 온 저자 박용철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감정습관에서 벗어나 평생 무너지지 않을 행복한 감정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성인



### 습관의 재발견

저자 스티븐기즈 /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매년 초, 매월 초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거창한 계획들을 세운다. 작심 3일을 반복하는 우리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 「습관의 재발견」은 결심과 포기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계획을 이행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쓰는 '습관 전략'에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열정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자기계발서의 통념을 거부하며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무조건 실천 가능한 전략, 즉 '작은 습관'을 제시한다.

# 안산문화원, 눈높이 전시와 체험활동 만나

안산의 역사를 오감으로 만나다

안산지역의 역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사1동에 위치한 안산문화원은 안산에 사는 시민이라면 한번쯤 꼭 방문해 볼 만한 곳이다. 특히 안산을 단순히 계획신도시이자 공단도시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만나는 안산의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재는 새삼 내가 사는 곳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안산에 신석기 시대의 대규모 움집이 발견된 터가 있고, 고인돌이 발견된 지역이 있다는 사실, 조선시대 4대 만권당 중 하나였던 고택이 남아있다는 것을 모두 안산문화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원에는 안산지역에서 발굴하고 모은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을 뿐 아니라, 안산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문화유적들을 작은 모형으로 감상해 볼 수 있다. 수암동에 있는 안산을 성 및 관아지와 안산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 청문당, 사세충렬문 등이 축소된 작은모형으로 전시되었다. 또, 지금은 사라져 흔적만 남아있는 성태산성이나 별망성 등 안산의 옛터를 모형으로 복원해, 예전 안산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했다. 아직 역사를 어렵게 생각하는 어린이들은 이 모형들을 통해서 과거 안산의 모습을 더 흥미롭게 관찰해볼 수 있다. 움집 생활을 하며 흙

로 토기를 만들고 사냥을 하던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모습,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며 배 타고 고기를 잡던 어촌마을의 풍경, 성벽 위에서 화살을 쏘며 전쟁을 하던 모습 등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이곳에 나온 안산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와 문화재들을 직접 가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된다면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간접적인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안산문화원에는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볼 수 있다. 빗살무늬 토기, 굽다리 그릇 등 다양한 모양의 토기 조각을 맞춰볼 수도 있고, 안산의 옛 지도를 퍼즐로 맞춰보는 코너도 있다. 성호 이억, 표암 강세항 등 안산의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터치스크린으로 직접 눌러서 알아볼 수도 있다. 야외 체험장에는 맷돌과 다듬이가 여러 개 놓여 있어, 어린이들이 콩을 직접 맷돌로 갈아볼 수 있고, 방망이를 두드려 천을 다져보는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문화원 마당에 나오면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전통그네 체험도 할 수 있다. 요즘 놀이터에 있는 그네와 스케일이 다른 엄청난 높이의 그네를 직접 타보며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을 보면, 전통 놀이의 흥룡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추워서 선뜻 멀리 놀러가기 힘든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도 좋겠다.

안산문화원에서는 전시 외에도 사물놀이, 경기민요, 한국무용 등 다양한 문화학교 강좌도 열린다.

문의 : 안산문화원(031-415-0041~2)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 안산문화재단 기획공연(4월)

문화재단이 추천하는 작품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



키움티켓은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청소년 공연·전시 관람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안산시 청소년

지원내용 청소년 관람료의 50% 지원

홈페이지 <http://kiwoom.ansanart.com>

문의사항 031-481-4028, 080-481-4000

**공연일정** 2016년 4월 2일(토) ~ 4월 3일(일)  
토요일 3, 7:30PM / 일요일 2, 6:30PM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출연** 신성우, 바다, 김법래, 김지우 등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 / B석 4만원

**공연내용** 시간으로도 지워지지 않을 명작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안산 상륙! 주옥같은 명대사와 노을 지는 황혼의 키스 신, 남부의 화려한 무도회 등 당신이 기억하는 원작 그대로 무대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이다.

**공연일정** 2016년 4월 21일(목) - 4월 23일(토)  
목요일, 금요일 8PM / 토요일 3, 7PM

**공연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출연** 주인영, 김영필, 고수희 등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중학생 이상 추천)

**관람료** R석 3만원 / S석 2만원

**공연내용** <경숙이, 경숙아버지>는 한국전쟁 무렵을 배경으로 가족을 내팽개치고 자유를 찾아 세상을 방랑하는 이기적인 아버지와 어린 아버지를 지켜보는 딸의 애증을 그린 작품이다. 2006년 주요 연극상을 휩쓸고, 인터파크가 조사한 '관객이 뽑은 최고의 연극'에서 2위를 차지하며 평단과 관객 모두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받아왔다.



겨울  
끝자락에서  
만난  
안산중앙공원

아무  
걱정 말아요.  
길 위에  
길이 있어요.



# FOREST IN WINTER



**안산은 크고 작은 공원이 많다.** 안산시청 뒤편에 자리한 안산 중앙공원은 1997년 야산을 정비해 공원화해 산책과 운동, 삼림 육을 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감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아카시아 나무, 소나무, 복숭아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자랑하며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 상태의 숲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다.

안산중앙공원 주위를 빙 둘러 시청, 경안고등학교, 덕성초등학교, 빌라 단지, 올림픽 기념관, 고잔 초등학교가 있다. 시민들의 삶터 가까이 있기에 언제든 오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봄기운 완연한 휴일에 찾은 안산중앙공원은 청명한 새소리로 숲에 들어섰음을 알려준다. 당곡 운동장 옆 테니스장에서 휴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과 함성소리를 뒤로하고 흙길을 오른다. 흙을 밟는 발끝에 폭신함이 전해진다.

양쪽으로 큰 키를 자랑하는 나무는 벚나무다. 4월이면 화려한 꽃잎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절정의 시간이 지나면 꽃비를 흠날리며 훌연히 떠나버릴 벚나무가 후일을 도모하고 있으리라.

성장이 멈춘 듯 아무런 미동도 없는 벚나무 속에 수많은 꽃잎과 푸른 잎사귀가 품어져 있으리라 생각하니 무엇 하나 허투루 볼 것이 없다는 사실에 짐짓 숙연해진다.

마음과는 달리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이 몇 걸음 오르자 바로 신호를 보낸다. 그리 가파른 길이 아니건만 호흡이 거칠다. 추위를 핑계로 게으름과 한 몸이 되었던 자신을 나무란다. 그러나 짹하게 맑은 하늘을 보니 씩 웃음이 난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흰 구름이 무심한 듯 스욱 걸쳐져있고, 희미하게 난 길은 사람들의 발길에 부스러진 낙엽이 흙과 하나가 되어있다.

길고 긴 겨울의 터널을 빠져나와 봄을 향해 가는 이 시점이 희망과 활력을 주는 만큼 숫자에 불과한 나이 따위는 잊자고 되뇌며 걷다보니 어느새 자그마한 정자가 보인다. 정자에서 다리를 쉬며 주위를 둘러보니 선명하진 않아도 안산이 한눈에 보인다.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며 바라본 안산은 한 울타리 안에 동그렇게 둘러싸여있는 모습이 포근하고 정겹다. 낮은 지붕의 빌라 단지와 높은 층수를 자랑하는 아파트 단지, 쪽 뻗은 도로, 건너 광덕산까지 손에 잡힐 듯하다. 녹음이 우거져있었다면 보이지 않았을 풍경들이다.

올림픽 기념관 옆 주택가에 살고 있는 이정옥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안산에 터를 잡았다. 이곳으로 이사를 온 후로 매일 안산중앙공원을 오르자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좋아짐을 느낀다며 “집을 알아볼 때 가장 우선순위가 주변에 숲이 있는지였어요. 등산을 하기엔 무리가 있기에 되도록 얇은 등성이를 찾았는데 이곳이 안성맞춤이었죠. 길이 난 곳이면 아무 곳이나 이리 저리 다녀도 걱정이 없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좋아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흔히 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사람도, 건강도, 재물도, 곁에 있을 때는 그 가치를 간과하기 쉬워 소홀히 대하다 곁에 없으면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다. 산책길에 만난 이정옥 씨의 뒷모습을 보며 때를 가리지도, 낮을 가리지도 않은 숲에서 몸도 마음도 깨끗이 치유되어 건강을 되찾기를 마음으로 빌었다.

기분 좋은 산책을 마치고 되돌아오는 길. 걸음을 벗고 바람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3월이다. 두꺼운 겨울옷을 벗고, 가볍게 시작하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라는 유행가 가사를 흥얼거리며 내려오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자신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에 더없이 좋은 안산중앙공원. 걸음걸음마다 되뇌인 소박한 다짐들이 결코 공염불로 끝나지 않도록 희망의 싹에 부지런히 물을 줄 일이다.

김은미 명예기자\_ iam34@hanmail.net

## MADE IN 숲

2016년 한 해 동안

숲 이야기를 연재한다.

겨울 숲, 사색하기 좋은 숲, 운동하기 좋은 숲,  
데이트하기 좋은 숲, 가족나들이하기 좋은 숲,  
힐링하기 좋은 숲, 생태 숲, 아파트 숲 등  
숲의 다양한 기능과 추억을 담는다.

-

겨울 숲 3





#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 市 산하기관·평생학습원 업무보고 실시 각 기관 사업계획 점검 및 개선사항 전달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5일과 16일 시 산하기관 3곳과 평생학습원, 화정영어마을을 방문해 현장 업무보고를 받는 등 활발하고 내실 있는 상임위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안산시 평생학습원을 찾아 '혁신교육지구 시즌 2' 사업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화정영어마을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시설을 점검했다.

평생학습원 측은 안산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과 기대 효과, 관련 조례인 '안산시 안산형 혁신교육 지원조례' 제정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기행위 위원들은 기존 교육 경비 지원 사업과 새로 시작하는 혁신교육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두

사업 예산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혁신교육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어마을의 대시민 홍보 강화와 지역사회 연계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수강료 조례 명시 등의 개선사항을 전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새롭게 구성되는 마이스산업 팀의 주력 모델 설정과 시 마이스산업계와의 업무 중복 문제,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수련관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피드백 조사 철저와 정확한 회계 편성, 단원청소년수련관 설립 과정에서 역할 설정 등을 주문하면서 시 산하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 청소년 교육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산시의회 세월호 대책 특위, 19일 진도 동거차도 방문 세월호 유가족 위로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를 방문, 이 섬에 머물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 현황 등을 파악했다. 박은경 세월호 대책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나정숙, 전준호, 김동수, 윤석진 위원 등 특위 일행들은 이날 새벽 안산을 출발, 오전 10시경 진도군 서망항에 도착한 뒤 1시간 가량 어선을 타고 이동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동거차도에 입도했다. 동거차도는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해상에서 1.5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섬에서 조를 이뤄 숙식을 해결하면서 인양 작업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선

체 인양 지점이 보이는 섬 정상에 따로 마련된 숙소가 없는 탓에 유가족들은 음식과 식수를 자체 조달하고 천막에서 숙식을 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 지내고 있다. 섬에 도착한 특위 위원들은 준비해온 격려 물품을 섬 정상으로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고, 정상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애로사항 청취와 선체 인양 작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특히 시민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세월호 참사가 여전히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시의회와 지역사회에 부여된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가족 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유가족들에게 세면 공간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동거차도 주민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아리송한 맞춤법을 알려주는  
**'브라보 Talk'**

**여보, 오늘부터 반듯이 다이어트 할 거니까 절대 말리지마요.** 오전 03:25

**아니 당신이 뱀살 데가 어디 있다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래.** 오전 03:26

당신이 만날 나한테 그렇게 말해서 진짜 뱀살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걸 알았어요. 어제 봄옷 하나 장만하려고 옷가게 갔더니 작년보다 사이즈가 더 들었지 뭐예요. 오전 03:27

**이 사람아, 나이 먹으면 적당히 살도 있어야 보기 좋은 거야.** 오전 03:27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뱀살이 자꾸 적어서 고지혈증도 걱정되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겠어요. 오전 03:29

**당신이 다이어트 하면 나는 어떡해. 매일 나 혼자 밥 먹으란 말이야?** 오전 03:29

여보, 당신도 건강 생각해서 저녁 식사 양은 조금 줄이고, 나랑 운동시작해요. 부부가 함께 운동하면 건강도 챙기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일거양득이잖아요. 오전 03:31

전송

## 반듯이는 '반드시'라고 써야 맞습니다.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 또는 '기필코'의 뜻으로 씁니다.  
예) 반드시 시간에 맞추어 오너라. /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반듯이'는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라는 뜻으로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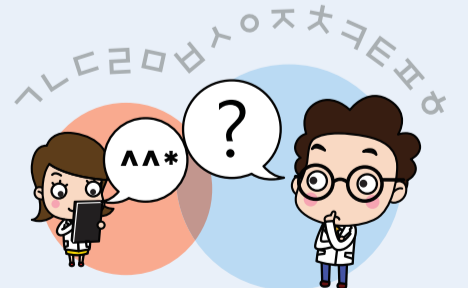
예) 허리를 반듯이 펴라. / 벽에 등을 기대고 반듯이 앉아있다.

## 어떻해은 '어떡해'라고 써야 맞습니다.

'어떡하다'는 '어떠하게 하다'가 줄어든 말입니다.  
예) 오늘도 연락이 안 오면 어떡해. / 날이면 날마다 술을 마시면 어떡하니.

'어떻해'는 '어떻게 해'라고 써야 맞습니다.  
예) 미처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 남의 가게에서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김은미 명예기자 \_ iam34@hanmail.net



## 뉴스 미란다 원칙

브라보안산에 게재된 내용중 문의사항, 반론, 정정 요청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부서 및 안산시청 공보관실(031-481-204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봉사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이명례 씨

“  
처음엔 마음을 내주지 않으시지만  
수시로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느새 친해져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걱정이 돼  
자주 전화통화를 하니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지죠.  
”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드리고, 이 미용봉사, 말벗 봉사를 10여 년째 하고 있는 이명례(63세, 월피동)씨는 인터뷰를 한사코 거절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고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 같아 싫다는 것이 이유다.

이명례 씨는 1990년 안산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상록노인복지관에 드나들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따로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어찌 너머 배운 솜씨로 어르신들 머리 손질하는 활동을 하며 봉사의 의미와 매력을 느꼈다.

“보건소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되는 밑반찬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정에 반찬을 해서 갖다드립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저희 집에서 먹는 대로 해서 드리는데 맛있다고 하시면 기분도 좋고 더 갖다 드리고 싶어요.”

반찬을 가져다 드리면서 집안을 살펴 정리가 필요하면 청소를 해드리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면 곁에 앉아 얘기를 들어드린다. 누군가가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고 느낄 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맡긴 손자들을 돌보느라 힘에 부쳐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죠.” 올해 86세이신 친정어머니께도 곁에 계시는 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자녀에게도 “부모님이 항상 곁에 있지 않으니 있을 때 잘해라.”라는 말을 한다는 이명례 씨. “누구하나 예외 없이 나이가 들죠. 늙으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데 조금만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귀 기울여 들어준다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는 이명례씨에게 봉사 활동을 계획하는 이들을 향한 조언을 부탁했다.

“우선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돕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해보세요. 또는 주변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 하루 동안 동행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예요. 나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



해보면 아마 빠져나오기 힘들 거예요.”라고 말한다. 자원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 또는 그런 활동’이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대부분의 봉사자들은 더 큰 것을 얻



었다고 말한다. 어둠이 짙을수록 한줄기 빛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오늘도 소외된 이웃을 향해 바빠 움직이는 봉사자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어둠을 걷어내는 한줄기 빛처럼 느껴진다.

김은미 명예기자\_iam34@hanmail.net

## 늦게 받았지만 더욱 빛나는 졸업장 안산용신학교, 초·중학생 졸업식 열려



학사복을 입고, 학사모를 쓴 학생들. 그 주위로 축하하기 위해 꽃다발을 든 어린이와 하객들의 모습은 어느 졸업식장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결을 더 나아가 얼굴을 보는 순간 범상치 않은 졸업식임을 알 수 있다. 성별과 나이는 제각각이지만 함께 공부했다는 공통점으로 친구가 된 그들은 그간의 수고를 서로 격려하며 자축하고 있었다. 깊게 패인 주름살도 잊은 채 맘껏 웃으며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었다. 지난 2월 19일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서 열린 제28회 안산용신학교 졸업식 풍경이다.

제도권 밖 청소년의 배움터 ‘안산중앙실업학교’가 전신인 안산용신학교(구 용신평생교육원)가 이날 배출한 졸업생은 초등학교 인정 13명, 중학교 인정 49명이다. 특히 성인 대상 중학교 인정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2013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중학교 인정을 문자해득 교육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중학교 과정을 2년간 수학을 학생들에게 주어진 첫 졸업장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노선덕 교육장은 축사에서 “삶의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 선택한 학습 과정 과정마다 함께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열정과 희망이 녹아있음을 보았다. 주변이웃과 가족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한 양지우 씨는 “2년 전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들어선 안산용신학교에서 생각처럼 되지 않는 공부를 하느라 머리를 쥐어짜며 견뎌낸 시간이 이제 추억이 되었다. 공부하랴 살림하랴 바빴지만 어느 때 보다 행복하고 즐거웠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의 소중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언제나 나의 응원군이 되어준 가족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산용신학교는 초등학교 인정을(문해 1단계, 문해 2단계, 문해 3단계)과 중학교 인정을(중학 1반, 중학 3반) 주·야간반을 운영 중이며 중학교 인정을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계좌제 연계 고등반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영어 기초반, 영어 기초 문법반, 국어 독해반, 한자급수 시험반을 개설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누구는 공부에 때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을 한 목소리로 말한다. ‘공부하기에 딱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 문의 : 안산용신학교(031-494-0675)  
김은미 명예기자\_iam34@hanmail.net

# 안전한 나라에 살기위한 가장 작은 실천 출지만 따스했던 동행0416 서명운동 현장



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16일 저녁, 중앙동 대동서적 앞 사거리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한창이었다. 매월 16일마다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작은 행동들을 해왔던 동행0416과 416가족협의회, 엄마의 노란손수건 회원들이 거리를 지나는 많은 시민들에게 서명의 의미를 전하며, 노란리본을 나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서명운동이 진행됐는데, 참사 2주기를 앞둔 구정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시작된 서명운동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참사 진상조사 활동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예산지급이 늦어지며 지난해 9월에서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특조위의 조사기간이 올해 6월에 종료할 상황에 처했고, 예산도 1/3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올해 7월 완료될 예정인데 특조위 활동이 6월에 종료될 경우, 정작 참사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를 특조위가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

가만히 서 있어도 손과 입이 얼 정도로 추운 날씨가 중앙동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빨랐지만, 멀리서 보고 달려와 언 손으로 서명을 남기는 시민들의 훈훈한 모습도 꽤 발견할 수 있었다. 커피잡바를 입고 다정하게 응원의 말을 남기고 가던 연인, 조심스레 다가와 노란리본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여중생 등 젊은 친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박카스 상자를 수줍게 내밀던 앳된 청년, 뜨거운 캔 커피를 서둘러 건네고 사라지던 한 시민분의 온기가 추운 거리에 따스함을 전달했다. '우리가 안전한 나라에 살기위한 가장 작은 실천'이라고 써 있던 피켓의 문구처럼, 잠시라도 발길을 세워 불펜을 들어 준 시민들의 작은 마음들이 생각보다 큰 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날 언 손으로 피켓을 1시간 30분 동안 들고 서서 시민들에게 서명을 권하던 동행0416 회원들은 정

확한 메시지로 이번 서명의 필요성을 알리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날 함께한 동행0416 회원 한미현 씨는 "그동안 세월호와 관련된 다양한 서명운동이 있다 보니, 이미 했다고 생각하시고 지나치는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다."며 "힘들게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특조위가 진상조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 개정 서명에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행0416 회원들은 매월 16일마다 안산 거리 곳곳을 돌며, 노란리본을 나누며 피켓홍보 및 서명활동을 해왔다. 상록수역이나 중앙역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도 돌고, 날씨가 좋았던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은 수암봉이나 노적봉을 찾았다. 지난 겨울에는 이승환 콘서트가 열리던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찾아 서명을 받기도 했다.

8시 서명 테이블을 정리할 때쯤, 틈틈이 붉게 물든 입술의 소녀 두 명이 먼저 서명을 하겠다고 다가왔다. 아이들의 선량한 눈빛을 보며 함께한 봉사자들은 어느덧 엄마 마음이 돼 주머니에서 세월호 배지며 노란리본 등을 주섬주섬 꺼내 아이들에게 건네주었다. 1시간 반 동안 열었던 몸이 아이들의 선의와 마주하며 녹아가고 있었다. 

송보림 명예기자\_ treehelper@naver.com

## 안산시 뇌졸중 치매예방사업단

# 치매 예방위한 뇌 건강 프로그램 운영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 사업단에서는 안산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 365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뇌건강 365 프로그램'은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증진으로 인지 기능유지와 향상을 돕는 인지치료 프로그램으로 단원보건소와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 사업단에서 진행한다. 치매 어르신 뿐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자와 고위험군, 만 60세 이상의 안산지역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집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와는 다른 체험을 얻을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체운동은 운동 관련 기관만이 아니라 호흡 순환기계 기능도 촉진해 정신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치매예방 사업단의 최은영 팀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으며 일부 치매는 예방도 가능하고 치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호전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질병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사회가 진행될수록 뇌졸중과 치매 또한 발병률이 올라가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열 명 중 한 명꼴로 치매를 앓을 걸로 예상될 정도로 치매는 흔한 질병이 됐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치매는 본인도 모르게 병이 시작되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무서운 질병이다. 치매는 아니지만 기억력, 어휘능력, 주의집중력, 판단력 등이 저하되어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도 늘어나게 돼 치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단원보건소와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뇌건강 365 Program 운영

① 기억충전소	
목적	특정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를 자극하여 인지기능의 저하를 방지 및 향상으로 병적증상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 증진 및 유지하는 치료 프로그램
적응자	노년부진기, 약기능부, 동맥안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인지기능적 보강과 관련기능의 유지 및 향상
시간	월 11:00-12:00
장소	서울 또는 시물을 이용한 언어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심과 신체적응력 개선 또는 유지
② 기억평가 교실	
목적	경도인지장애(우울증)를 예방하고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적응자	컴퓨터 및 태블릿 PC를 활용한 주의력 및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 (컴퓨터를 하지 못해도 가능함-4:0)
시간	월 13:30-2:30
장소	뇌의 운동기능 관련 부분을 자극하고 뇌세포 및 신경세포의 증진과 일상생활 향상에 활력을 주는 프로그램
③ 신바람 라인댄스 교실	
목적	태블릿 PC의 사용법을 익히고 활용하는 것 뿐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며 집중력, 기억력 등 다양한 인지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적응자	어리먼의 사람들이 줄로서 행진 운동에 맞춰 주는 춤으로 인기가 단순하고 하면서 상반 및 단반에 제한이 없고, 동작을 기억해야 함으로 치매예방과 골다공증, 체중감량 및 올바른 자세 운동기에 효과가 있는 운동 프로그램
시간	월 10:00-11:00

☎ 문의 : 단원보건소(031-481-3482), 안산시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031-8040-5109)  
백미란 명예기자\_ whity0218@naver.com

안산농산물시



안산의 하루를 가장 먼저 여는 곳. 안산농수산물시장의 새벽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자 누군가의 희망이 자라는 곳이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안산 겨울 풍경



겨울이 마지막 눈을 보내 아쉬움을 전한다. 흙을 뚫고 올라 올 새순들은 마음껏 수분을 흡수하였으리라.



“

##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

”



어느덧 서른이다.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졌던 건 오히려 이십대 초반이었다. 나는 이십대 초반에 서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적당히 무르익었지만 아직은 싱싱한 나이. 하지만 막상 서른이 되고나니 서둘러 무엇인가 해내야겠다는 조바심만 들 뿐이었다. 파릇파릇한 열여덟도 즐기지 못했는데 아무런 서른을 즐길 수 있을까. 이따금 울컥 나의 지난 시절에 대한 후회가 밀려온다. 얼마 전이었다. 우연히 ‘나를 위한 글쓰기’라는 제목의 산문을 읽은 적이 있다. 나는 글쓰기에 소질이 있는 편이었다. 어릴 적 칭찬을 들은 기억도 있어 나를 자신 있는 분야였다. 그 산문을 읽다 필자가 적어놓은 첫 번째 주제로 글을 써보기로 했다. 주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섰다. 나의 서른은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았다거나, 견디기 힘든 좌절과 시련을 이겨낸 시간이 아니었다. 그저 수능을 보고, 대학교를 다녔으며, 회사에 취직했을 뿐이었다. 그 사이사이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많은 즐거움들이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러운 것일까. 아무리 떠올려 봐도 ‘가장 행복했던 일’은 떠오르지 않았다. ‘가장’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무수히 많은 일들을 적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가장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슬펐던, 가장 힘들

었던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닐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많은 고난과 좌절을 피해왔던 것이었다. 언제나 선택은 내가 해왔다. 누군가 떠미는 것 같았지만 거부하거나 발버둥 쳐본 적은 없었다. 전부 내 선택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내 인생이고 내 책임이었다. 그리고 생각의 끝에 인정하게 되었다. 내가 피해왔던 것은 고난과 좌절,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그 후에 있을 행복이라는 것을.

유 가 희(부곡동)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 2016. 4. 13 실시 〉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일은 4월 13일(수)이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월 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 이번 선거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의 확대 및 선거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기록과 학력을 공개합니다.
-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였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을 허용하고,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개표참관도 가능하도록 하여 개표참관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시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투표용지의 각 정당 또는 후보자 칸 사이의 여백을 설정하여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서면 등록한 사람을 의미하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일인 3월 2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4일 ~ 25일)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후보자 기간 포함 5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 1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후 6 ~ 59개월 소아, 임신부, 50 ~ 64세 연령 등
- 2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 3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 4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5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 6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문의 : 상록수보건소 ☎ 481-5938 / 단원보건소 ☎ 481-3475

##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역할



##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이용하는 방법

### 언제 어디로 가나요?

경기도 31개 시·군별 1개소씩 운영중

평일(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포털사이트에서 "경기도의회(시군명)상담소" 검색  
가까운 상담소로 방문상담 (전화로 상담일정 예약 가능)



### 상담소 위치 및 연락처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16, 4층 401호(고잔동)



## 2016년 3월 주말 영화상영

### 상록어린이도서관 주말 영화상영 프로그램



장 소 안산시 감골도서관(상록어린이도서관 지하 어울림방)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문 의 상록어린이도서관 ☎ 481-3744, 감골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 단원어린이도서관 주말 영화상영 프로그램



장 소 안산시 관산도서관(단원어린이도서관 지하 강당(아울러터))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문 의 단원어린이도서관 ☎ 481-3856, 관산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건강 먹거리



### \* 달래의 효능

#### 춘곤증 예방 효과

달래에는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해 춘곤증을 예방해주어  
나른해지기 쉬운 봄에 좋은 먹거리입니다.

#### 빈혈 예방 효과

무기질과 비타민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빈혈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 맛있는 달래 더 효과적으로 즐기는 방법

- 무기질, 칼슘이 풍부한 달래와 돼지고기를 같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습니다.
- 향이 진한 달래를 원하시면 알이 굵은 달래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신선한 달래 고르는 방법

- 시들거나 누렇게 뜬 제품은 저장기간이 오래 된 것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달래의 밑 부분이 마른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노랑색 머리에 녹색 줄기의 달래가 좋습니다.

봄이 오면 나를 괴롭히는 춘곤증을 물리칠 수 있는 달래!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